



나의 명함은 미술자료 수집가다!

글 김종길 | 사진 김민곤

“청계천 서점가를 돌며 미술서적을 찾고 그림 한 장 때문에 잡지 한 권은 살 수 없다며 낱장으로 뜯어 팔라고 사정하고, 일간지 미술 기사를 스크랩하며... 미친 녀석이 되어 버렸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열정과 광기만이 일가一家를 이룰 수 있다. 조선 시대 이덕무는 책을 미쳤고, 바다 생물에 미친 정약전은 『현산어보』를 남기지 않았던가. 21세기 한국의 김달진(52)은 미술자료에 미쳐 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술자료 인간 컴퓨터’,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걸어 다니는 아카이브’와 같은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이미 미술자료 수집만 35년의 세월을 헤아린다.

1972년 고등학교 시절, 홍익대 이경성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가 그동안 수집한 온갖 미술자료를 보여주었던 일화는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전설이다. 그 인연은 1981년에 이경성 선생이 민간인으로 선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맺어진다. 미술 자료의 체계적 수집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는 이경성 선생이 그해 9월, 자료수집 담당으로 그를 채용했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이 그나마 현 수준에 이른 것은 그의 15년간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 아닐까.

그는 자료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미술자료에 관한 비판과 제안의 글을 발표했다. 「관람객은 속고 있다-미술자료 기록의 허구」(1985. 선미술), 「해도 너무한다, 누가 역사를 그르치는가」(1997. 가나아트), 「홀대받는 ‘미술관 사서」」(2002. 동아일보) 등의 글에서 자료의 허구뿐만 아니라 기록이 갖는 역사성과 의미를 지적하고, 나아가 자료의 수집과 정리와 연구를 위한 ‘미술관 사서’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1991년부터는 꾸준히 미술자료 아카이브를 위한 ‘미술자료센터’의 설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미술자료가 단순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 문화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1996년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가나아트닷컴 총괄팀장을 거쳐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했다. 개소 후 안휘준, 김영나, 김영순, 윤범모, 윤진섭, 박래경 등 많은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연구소를 다녀갔다. 이때부터 그는 미술 자료 수집의 실제적 효용성을 궁리했는데, 그 결과물로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했는가 하면, 달진닷컴(daljin.com)이라는 미술정보 사이트를 오픈했다. 매월 초, 전국의 주요 갤러리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 『서울아트가이드』 잡지는 훌륭한 전시정보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미술자료 콘텐츠가 되고 있다.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찾는 달진닷컴 또한 온갖 자료로 가득하다. 한 예로, 미술잡지 7종 821권 13,824건, 폐간 미술잡지 15종 195권 3861건, 학회지 24종 166권 1405건에 대한 색인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매일 일



간지 15종에서 스크랩한 미술 기사를 그날 살필 수도 있다. 만약, 연구소를 직접 방문한다면 전국에서 수집되고 있는 문화예술지 40여종의 미술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미술 관련 단행본에 대한 리뷰와 소개, 그리고 미술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미술인의 주소와 연락처도 구할 수 있다.

소설가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는 제주도에 귀양 온 김윤식이 쓴 일기 『속음청사續繪晴史』를 사료로 삼았다. 이렇듯 하나의 자료는 역사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팸플릿 하나에서 시작된 미술 자료 수집이 이제 한국 현대미술사 연구의 깊은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지금 각 자료에 대한 도서관식 라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일차적으로 2600여 권에 이르는 미술 단행본을 내년 초에 회원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작업의 성과를 보면서 화집류, 팸플릿, 논문집, 잡지, 학술지 등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특히 연구자들에게 매우 희귀한 자료가 될 근대작가 스크랩북도 정리 중이다. 근대작가 스크랩북이란 작가 개인별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신문기사에 난 화보, 논문, 잡지류 등 다양한 자료를 망라해 묶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260명에 이른다. 그 외에도 미술인명사전, 작곡작가 리스트 등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자료가 널리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늘 주장했듯이 ‘미술자료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수집한 자료의 보존과 관리, 연구, 자료공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도 협소한 현재의 연구소를 서울 가회동으로 옮길 구상도 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할 터이다. 그는 『서울아트가이드』를 통한 경제적 자생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연구소 직원 3명이 쌓아가는 한국 현대미술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리라. 📖

